

에너지대전, 10월16-19일 코엑스 개최

녹색에너지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에너지산업 전시회가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3년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2013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대전은 녹색에너지전, 신재생에너지전,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엑스포, 인터배터리 등을 통합한 국내 최대규모로 개최됐다.

특히,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를 겪은 이후여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에너지, 삼성 SDI, LS산전 등 약 270개 관련기업들이 장비와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한화솔라원은 신재생 에너지전에서 소금, 눈, 바람 등에 강한 내부식성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을 선보이며, 삼성인더스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지붕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을 홍보할 방침이다.

강혁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전시회는 수출 상담회나 세미나,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해외 국가기관과 건물에너지관, 전기자동차(EV)관 등 테마관도 운영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녹색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산업에서 융합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3/10/16>